

현대오일·현대중 이어 조선해양 대표로 진두지휘

# 세번째 구원투수로 나선 권오갑, 경쟁國·노조 설득이 과제

(10여개국 기업결합심사)

## 권오갑 한국조선해양 대표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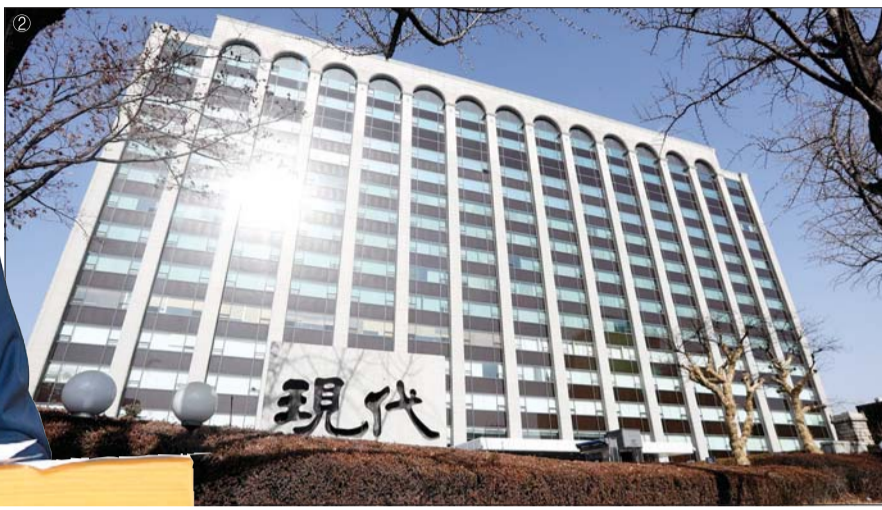
책임경영 일환... 권한·역할 확대 한 곳이라도 결합 불허한 합병 좌초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이 현대중공업에서 조선업 중간지주사로 분할한 한국조선해양의 대표로 선임됐다.

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권 부회장을 한국조선해양의 대표로 선임했다. 한국조선해양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 계동 현대사옥으로 최종 확정됐다.

권 부회장은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과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를 겸직한다. 가삼현·한영석 대표이사는 신설법인인 현대중공업의 대표이사를 맡을 전망이다. 권 부회장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구조조정과 희망퇴직 등 민감한 현안을 진두지휘했다. 권 부회장은 2010년 현대오일뱅크 인수 후 4년 동안 대표이사를 맡았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책임경영 차원으로 풀이된다. 권 부회장이 대표이사로서 한국조선해양의 경영을 직접 챙기며 당면 과제를 해결하라는 의미다. 권 부회장은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의 비상근직등기임원이었지만 이번에 상근직으로 역할이 확대되면서 권한과 책임이 모두 이전보다 커졌다.



그러나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기업결합 심사라는 난제가 남아 있다. 유럽연합(EU)과 중국, 일본 등 10여개국 중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을 불허할

경우 양사의 합병이 좌초된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주요국 경쟁당국과 사전 논의에 들어갔다. 권 부회장이 직접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한 현안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①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로 선임된 권오갑 현대중공업 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② 한국조선해양의 본점 소재지로 확정된 현대중공업 계동 사옥.  
③ 3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현대중공업 현장실사단이 대우조선지회 조합원과 현장실사에 대한 협의 실패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를 설득하는 것도 해결 과제다. 양사 노조 모두 이번 인수합병을 거세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3일 '주주총회 무효'를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벌였으며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현대중공업의 옥포조선소 현장실사를 무산시켰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4일에도 7시간동안 부분파업을 이어갔다.

노조는 주총 무효화를 위한 투쟁을 노조원들의 사내 파업과 금속노조법률

원을 통한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주총 무효소송(본안 소송) 등 두가지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본안 소송은 현대중공업노조 뿐 아니라 소액주주인 일반시민들을 소송단으로 모집해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노사갈등이 계속될 경우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그룹 내에서 자리를 잡는 데 장시간 소요될 수 있다는 업계의 관측이다.

권 부회장은 2016년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경험이 있다. 지주사 전환과 구조조정 등 고용 현안이 불거지면서 노조의 반대가 극심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순환출자 고리(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를 해소하고, 현대중공업지주(옛 현대로보틱스)가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는 현대중공업을 통해 조선 부문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체제를 마련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31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회사를 투자사업을 담당할 존속 법인 한국조선해양과 분할 신설 사업법인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의 2개 회사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 타워크레인노조 파업... 건설현장 '초비상'

3500여대 크레인 중 70% 가동 중단 국토부, 비상대책반 운영... 조치 강구

타워크레인 노조의 파업으로 전국의 아파트와 빌딩 건설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건물 등 건축 공사 현장은 현재 타워크레인 작업이 중단됐다.

대한건설협회는 현재 전국에서 가동 중인 3500여대의 크레인 가운데 약 70%인 2500대가량이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추산했다. 건설사들은 대부분 양대 노조의 반발과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비노조원 기사를 투입하는 등 노조를 자극하는 행동은 자제하면서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중8단지 재건축 현장은 최근 민노총과 한노총 충돌에 이어 이번에 타워크레인 파업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며칠 정도는 후속 공정을 앞당기는 선에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사지연과 이에 따른 입주 지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이 시공중인 여의도파크원 현장은 현재 타워크레인 7대가 모두 멈춰섰다. 이 건물은 지하 7층, 지상 69층 높이의 대규모 오피스 건물로 현재



양대 노총 소속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면서 신축중인 고층 건물과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멈춰 섰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의 소형 타워크레인. /연합뉴스

공정률이 55%에 이른다.

회사 측은 타워크레인인과 무관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공정 차질을 최소화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단기간 파업은 공정관리에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장기화했을 때가 문제"라며 "공기 지연에 따른 원가 상승 문제는 물론 아파트의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건설업계는 특히 타워크레인 없이는 철은 버릴 수 있지만 그 이상 파업이 길어지면 크레인을 이용한 자재 이동과 골조 공사가 불가능해져 후속 공정에도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한국노총과 민주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파업에 대응해 비상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대책반은 전국 발주청에 파업에 따른 현장점거와 대체인력·장비 투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 관리를 지시했고, 공정 차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노조가 임금 인상과 함께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운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사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 등 사업자가 소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할지, 대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할지 선택하는 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LS산전, 1848억 규모 태양광발전 수주

LS산전은 전남 영암군에 건설되는 총 설비용량 93MW급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의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주 계약 금액은 총 1848억원으로 LS산전이 국내외에서 진행한 단일 태양광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영암 태양광발전 사업은 대명에너지와 한국남동발전이 참여한 영암태양광발전이 영암군 금정면의 풍력발전 단지 내 296만㎡ 부지에 93MW급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계약에 따라 LS산전은 242MWh 규모의 ESS를 비롯해 154kV 변전소, 송



LS산전 구자균 회장(오른쪽)과 대명에너지 서기섭 회장이 4일 영암 태양광발전 개발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선로 건설 등 설계와 제조, 구매, 납품, 공사 등을 모두 맡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정연우 기자

## 文대통령의 복심으로 존재감 남달라

>> 1연 '양정철의 기업 스킨십...'서 계속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울산시에서 열린 '수소경제 전략보고회' 때 "세계적으로 수소경제가 시작되는 지금, 우리나라 수소차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50%에 달한다"며 "오는 2030년 수소차·연료전지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수소차는 현대차가 전반적으로 생산·수출을 담당하고 있다. 수소차 활성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원이 추진 중인 셈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민주연구원 수장에

주목했다. 현 민주연구원 수장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정평이 난 양정철 민주당 대선 선대위 부실장이다. 양 민주연구원장은 참여정부 때 문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비서실에서 호흡한 이력이 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민주연구원의 현 수장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한다"며 "양 원장의 존재감이 남다르기 때문에 원장직 취임 3주만에 서훈 국정원장·박원순 서울시장·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만남 행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겠나. 현대차 연구소 협약 등 기업 스킨십도 그런 일환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